

경허·용성 등 근대 선지식, 세계가 읽는다

조계종,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 英譯사업 '본격화'

경허·용성·석전·만해 스님 등 근대 선지식과 지성들의 저술들을 세계가 접할 수 있는 영역사업이 본격화되어 올랐다. 조계종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 영역편찬위원회(위원장 자승)는 5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을 10권의 총서로 묶어 오는 2017년까지 영어로 번역·출간한다"고 밝혔다.

5년동안 11억 2천만 원이 투입되는 역경 불사인 이번 근대한국불교대표 문헌 영역사업은 앞서故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 당시 추진한 '전통사상총서' 사업을 계승한 것으로 한국 대표 고승들의 저술에서 근대 불교 선지식의 문헌으로 범위가 변화된 것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해 5월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편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번역 대상 저술들을 선정했다. 대상 저술은 20세기 초부

터 해방 전까지의 발간된 320여 종의 불서였으며, 이 중 △철학 △역사 △문화 △의례 △비평 등 5가지 분야 10종의 도서를 번역 대상으로 삼았다.

철학 분야에는 경허 스님의 <경허집>과 용성 스님의 <각해일문>, 석전 박한영 스님의 <인명입정리회석>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박한영 스님이 불교의 인명학과 서양의 논리학을 비교 분석한 교학서인 <인명입정리회석>은 근대 불서를 살피던 중 발견해 처음 공개하는 것이라 눈길을 끈다.

역사분야는 김영수의 <조선불교사>가 선정됐다. 다만 <조선불교사> 편찬 이후 이뤄진 역사 연구 평가에 대해서는 주석과 해제를 통해 보완한다는 게 영역 편찬위의 계획이다.

문화분야에서는 고유섭의 <조선탑파의 연구>와 이능화의 <백회회통>이 선정됐으며, 만해 스님, 서정주, 조지훈 등 근대 불교사인들의 한데 묶은 <근대한국불교사선>도 번역돼 세계에 소개된다.

의례분야는 <석문의법>보다 4년 앞서 발간된 최초 의례서 <불자필람>이 이름을 올렸으며, 비평분야에서는 만해 스님 등 근대 불교 선지식과 지식인들이 잡지, 신문 등에 기고한 논설들을 모은 <근대한국불교개혁론> <근대한국불교논설집>이 영역된다.

철학·역사·문화·의례·비평 등 5개 분야 10종 도서 선정

존 조르겐슨·일미 스님 등 해외 학자도 역자로 참여 '전통사상총서' 계승 의미 2017년까지 5년 역경불사

5종에 대한 주요 번역자도 계약을 마친 상황이다. <경허집>은 존 조르겐슨 교수(호주 국립대)가 <각해일문>은 일미 스님(미국 듀크대 교수), <조선불교사>는 판자크 모한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백회회통>은 정단비(서울대 철학과 박사), <근대한국불

교개혁론>은 박포리 교수(미국 애리조나대)가 각각 책임 번역한다.

이와 함께 눈여겨 볼 점은 영역을 위한 한글 대본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영역 사업을 통해 공개되는 <인명입정리회석>의 한글 대본작업에는 김상일 동국대 국문과 교수, 고승학 불교학술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편찬위원회 기획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한국 불교 근대 시기 대표 저작들을 영역함으로써 세계인에게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영역출판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에 안정적인 영역 출판 시스템을 확립하고 동시에 해외 배포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장 정도 스님(조계종 교육부장)은 "근대 불교 문헌 영역은 민족의 시련을 함께한 근대 당시 한국불교의 지적 유산을 되새기는 작업"이라면서 "이를 통해 한국 불교의 정체성과 미래적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 문화 전통의 지적 역량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월호 참사 애도하며 '평상심' 찾아야"

자승 스님, 1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예방서 밝혀

"세월호 참사에 온 국민이 매몰돼 있고, 이로 인해 집단 우울증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제는 슬픔을 수습하고 '평상심'을 찾을 때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행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의 예방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지사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인사를 위해 예방한 남 후보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10여 일 진도 팽목항에 있었다"면서 "조계종 복지재단과 지역 사람들이 중심이 된 봉사활동이 매우 인상 깊었고, 두르려졌다. 부인을 잃은 남편은 직접 쌍계사를 찾아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의 위로가 유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느 시기보다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자승 스님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추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5월 15일 예방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모·애도하면서 각자 맡은 일에도 충실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상심을 찾을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인들은 민생 현안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기획실장 일감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과 김학용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안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주민소송 대상 아냐" 또 교회 손 든 法

고법,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취소소송 각하... 대책위 대법 상고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역시 사랑의 교회측에 손을 들었다.

5월 15일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황일근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및 건축허가 무효소송에서 "해당 사안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냐"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과 같은 조처다. 소송자체를 무효화했기에 제대로 된 공판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공도로 점용과 건축허가를 내줬다.

사랑의교회 신축관련주민소송 대책위 위원회는 이같은 법원의 연이은 결정에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대책위는 공판 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에 대해 지역주민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격하시켰다.

사랑의교회와 서초구청간의 유착관계도 비난했다. "이들은 공공도로 점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특례로 얼룩진 사랑의교회와 서초구청간의 유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사법부가 이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무능을 드러낸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가 기득권층과 관료들의 유착으로 초래된 사고임이 드러난

이상, 사랑의교회를 둘러싼 특혜를 목인하는 이번 판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위법무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가 어렵게 된다"며 제2세월호 참사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측은 "행정기관이 위법행위시 국민이 감시할 기회가 없어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종교가 권력화되어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그것이 종교가 지닌 바른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원고측 김형남 변호사 역시 "서울시라는 상위기관이 하급자치체인 서초구청을 대상으로 주민감사 실시 후 위법판단한 사안에 대해 주민소송이 아니라하면 이는 주민소송의 범위를 완벽히 줄이는 것"이라며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민들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공공도로를 사랑의교회가 영구점용했다는 데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는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일시적, 부분적으로 가능할 뿐이다. 더군다나 서초구청 유관부서 역시 이 지역에 공공하수시설(맨홀 5개, 빗물받이 15개소)이 매설돼 있어 하수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도로점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가스공사역시 도시가스 배관철거시 공공중단 수용가능을 드러낸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유로 도로점용이 어렵다고 서초구청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삼성 백혈병 피해 사과 미흡하지만 다행한 일"

조계종 노동위, 14일 성명

5월 14일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화)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의 공식사과는 2007년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7년 만에 이루어졌다.

조계종 노동위는 5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성전자가 뒤늦게나마 백혈병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계획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는 뜻을 밝혔다.

다만 반도체 사업장 근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측은 전문기관을 통해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안전 보건 관리 현황을 진단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만 밝힌 바 있다.

노동위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과는 진심을 바탕으로 나올 때만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 출발점은 무노조 경영 방침을 철회해 노동자의 노동 3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4개국 불교 스승에게 배우는 바른 집중법

보리수선원 6월 11~22일 국제심포지엄·수행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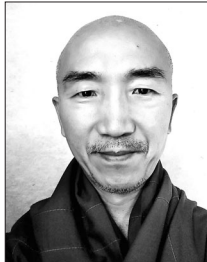
미얀마, 티베트, 중국, 한국에서 오랜 수행을 한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삶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열린다.

(사)보리수선원(원장 붓다락카파)은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부산, 합천, 광주 지역에서 '국제 심포지엄 및 체험 행사 - 바른 집중을 말하다'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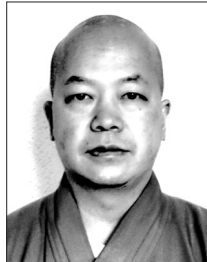
보리수선원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적 지도자들이 지금까지의 정신적 깊이인 집중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한국에 모였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부, 미얀마 대사관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순다라 삼장법사 스님(미얀마), 켄뉘사까 스님(티베트), 밍센 스님(중국), 원담 스님(한국)이 참여해 수행하면서 느꼈던 공금증을 해소시켜 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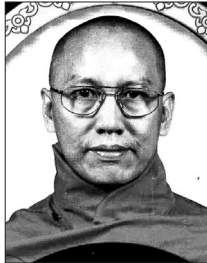
순다라 삼장법사 스님은 12세에 출가해 48세에 성경의 11배인 경장, 율장, 논장을 빨리어로 완전히 외우고, 쓰고 이해하는 삼장법사에 통과했다. 스님은 경전에 근거한 부처님의 바른 수행법을 스스로 점검하며 근세기 대선사인 순론 사야도의 정통을 따르고 있다.



원담 스님(한국)



밍센 스님(중국)



순다라 스님(미얀마)



켄뉘사까 스님(티베트)

켄뉘사까 스님은 1975년 겐룩빠 본사인 간덴 사원에서 출가해 오대경전을 수학하고 많은 학자를 제자로 키웠다. 1999년 간데 사원 교수로 임명된 스님은 현재까지 논리학, 반야, 중관학, 구사론, 율장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무문관 수행으로 집중명상과 분석명상을 통해 삼장을 닦고 있다.

밍센 스님은 감시성 운거산 전류사로 출가해, 루산에서 독거 수행 과정 중 집중론 친문기(入中論親聞記)를 완성했다.

원담 스님(진주 도과선원 선원장)은 서울대 총동회 회장을 역임하고 송광사로 출가하고 비구계를 수지하고 봉암사 회양선원 수선안거 이래 25안거를 성만했다.

행사는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부산, 합천, 광주, 보리수선원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첫 행사는 11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어떻게 정신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가'를 주제로 청중이 질문하면 응답하는 좌담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같은 방식으로 12일 오후 3시 경남 합천에서, 13일 오후 7시 전남 광주 동구청 6층에서,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 8층에서 바른 집중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1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8층에서 국가법 바른집중 지도 및 체험을 직접 지도·점검한다.

이어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보리수선원에서 '삼장법사의 특별집중수행'이 진행된다. 순다라 삼장법사 스님이 법문을 통해 아비담마에 근거한 수행법을 가르치고 개인지도 할 계획이다.

보리수선원장 붓다락카파 스님은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것들, 명백하지 않았던 것들, 수행하면서 공금했던 것들을 바로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02)517-2841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국민과 함께 세월호의 아픔을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평화세계법왕 석만청 합장